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이상수 후보 당선

12월 3일 결선투표에서 49.9% 득표 ... 생활생존임금 확보, 실질 정년연장, 고용안정 등 공약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2월 3일 지부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이상수 현대자동차 전 수석부지부장을 새 지부장으로 선택했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12월 4일 노조 현대자동차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결과 기호 3번 이상수(변속기)-배상원(판매)-유영준(2공정), 한순원(전주), 최정식(엔진)-진상건(남양) 후보 조가 당선됐다” 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임원선거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 3인-사무국장 등 여섯 명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선거인 5만552명 중 4만3천755명(투표율 86.6%)이 참여한 이번 결선투표에 기호 2번 문용문 후보 조와 기호 3번 이상수 후보 조가 각각 2만1천433표(득표율 49.0%)와 2만

천833표(득표율 49.9%)를 받았다. 현대자동차 임원선거 관리규칙 34조 2항에 따르면 임원선거 결선투표의 다득표자를 과반수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988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이상수 당선자는 2006년 변속기사업부 대표, 2009년 현대자동차 3대 수석부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상수 당선자는 ▲생활생존 임금 확보 ▲실질 정년연장 ▲4차 산업대비 고용안정 확보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철폐 (비정규직 근무 기간 완전 근속 인정) 등을 약속했다.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당선

김득영(수석)-박봉기(부)-이 준(사무) 후보 조 당선 ... 단협 원상회복, 구조조정 저지 등 공약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은 12월 2일, 3일 이틀 동안 지부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벌여, 기호 4번 김성갑 지부 대의원을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3일 “김성갑(부평)-김득영(부평)-박봉기(창원)-이 준(사무) 후보 조가 득표율 52.4%로 당선됐다” 라고 당선 확정 공고를 했다. 한국지엠지부 임원선거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사무국장 등 네 명이 한 조를 이뤄 치른다.

선거인 7천936명 가운데 7천219명(투표율 91.0%)이 참여한 이번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안규백 후보 조는 3천349표(득표율 46.4%), 기호 4번 김성갑 후보



조는 3천783표(득표율 52.4%)를 얻었다. 김성갑 지부장 당선자는 1986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했다. 1996년·2000년 대

우자동차노조 수석부위원장, 2004년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 의장 등을 역임했다. 1987년 노조 민주화 투쟁, 1991년 민주노조시수 투쟁, 2002년 대우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 등으로 세 차례 구속과 두 번의 해고를 겪었다.

이번 선거에서 ‘판을 뒤집어라, 주도하라’ 라는 구호를 내세운 김성갑 당선자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시수 ▲한국지엠 발전전망 마련 ▲미래 차 대책위 운영, 대정부 교섭 ▲사무직·여성·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조합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한국지엠지부 집행부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